

어릴적 주일학교에서 ‘믿음’하면 항상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말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으로 대신하게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일언반구도 없이 선뜻,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아 정말 대단하긴 한데 이해가 안 된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전에 무슨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은 자손과 관련되어 두 사건, 땅에 관하여 두 사건이 나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내려 갔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여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창 20:11)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어떤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제한적 능력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손문제로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젊었을 때부터 불임으로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사라, 이 두 사람이 만나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말라비틀어진 나무에 꽃이 활짝 피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달게 됩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불임을 신적 개입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현대 의학으로도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잉태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은 몸(아브라함)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깨달음이 부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땅과 관련된 두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물에 관한 것입니다. (창 21:13-19) 하나님은 목이 갈하여 죽게 된 하갈의 눈을 밝히사 그녀로 하여금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을 영위하게 되었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두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자신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때 아브라함은 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그 우물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 이외에 일곱마리의 암양을 따로 주어 그가 판 우물에 대해 아비멜렉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아비멜렉은 맹세를 합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이 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칭합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 또는 일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맹세의 우물” “일곱 개의 우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곳,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땅의 나그네로 있어서 유목민으로 방랑하며 살지만 언젠가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정결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브엘세바의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 전능하셔서 영원히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광풍 앞에 촛불과 같은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미래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수도 있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15)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8/6(토)	8/7(주일)
사20-24	사25-28	사29-30	사31-34	사35-37	사38-41	사42-44

QT

이번 주 QT 말씀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8/6(토)	8/7(주일)
창1:1-13	창1:14-23	창1:24-2:3	창2:4-17	창2:18-25	창3:1-13	창3:14-24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제한적 능력의 하나님이라 생각했던적이 있나요?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3. 이러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경험한적이 있나요?